

# 막구조를 이용한 재래시장의 새로운 공간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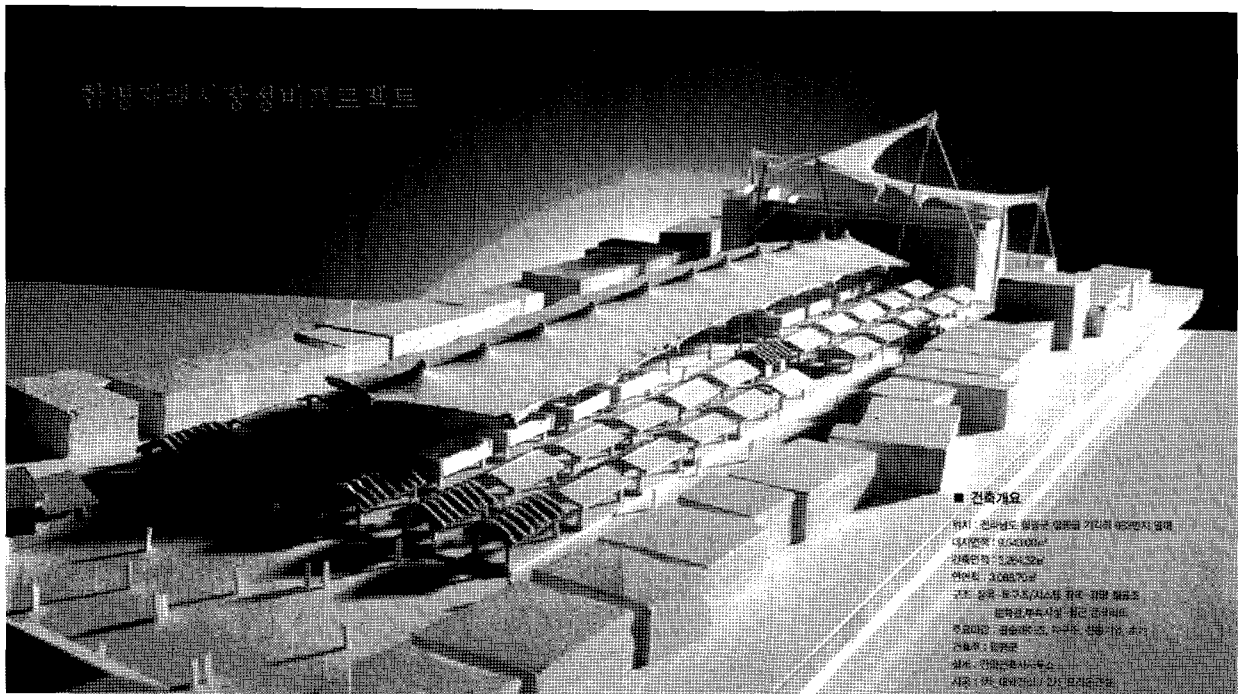
- 함평 5일시장 개선공사 -

New Space Re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Market To Use  
The Membrane Structure



박민철\*

Park Min-Cheol



■ 건축 개요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가림리 552번지 일대  
대상면적 : 9,543.00㎡  
건축면적 : 2,284.22㎡  
대지면적 : 3,088.70㎡  
구조 : 강골-복구조(시멘트 콘크리트-강철-철골조)  
계획용적률 : 24.1%  
주요시설 : 주차장, 화장실, 안내소, 휴게소, 물품대금, 물품판매소, 사무실, 전담인원, 관리소  
설계 : 한국철·공간구조학회지  
시공 : 현대(주) / 신대건축공사

한국의 시대적 변화속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의 활성화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의 중심공간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삶과 문화의 원동력이 된 장소성과 사회성의 역할 때문이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던 "시장"이라는 상업기능은 단순히 그 기능뿐 아니라 대중성과 살아가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행위를 그대로 간직하

\* 정회원, 간향건축 소장



조화"를 개념으로 거대한 길이의 막구조 지붕을 기존 장옥위에 별개로 세워 옛 장옥과 새로운 막구조가 이중적인 상부공간을 간섭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체와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한단계 더 나아가 막구조 하부 장옥은 언제든지 해체가능한 독립식 장옥구조로 계획하였고, 막구조 밖의 테두리에 있는 노출된 장옥은 새로운 목재로 옛 모습을 간직하여 기존 시장주변 도시 가옥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시행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예산에 따라 시장전체를 덮는 막구조설계가 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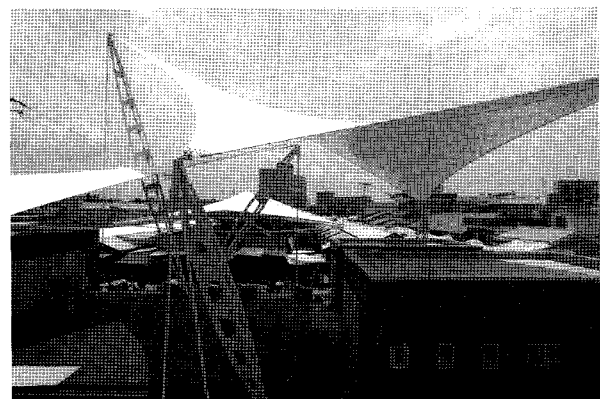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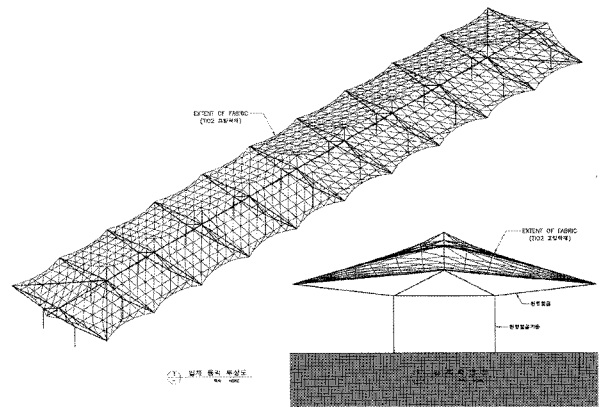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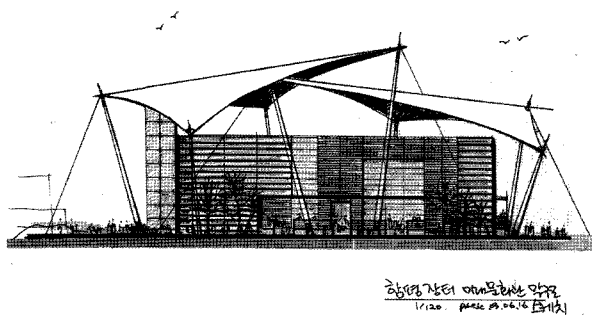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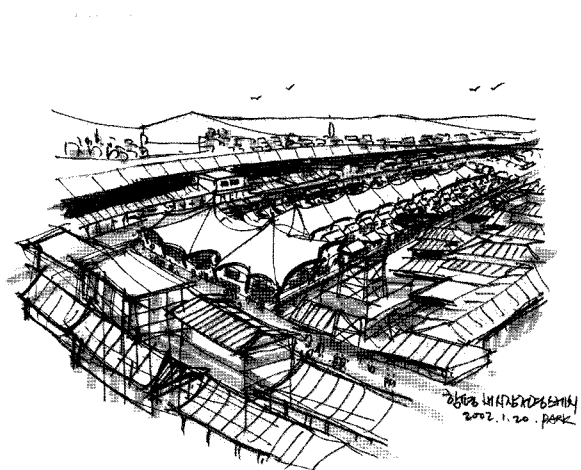
### 기술적인 도전과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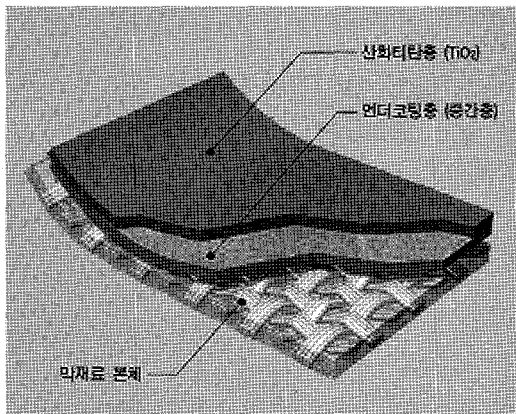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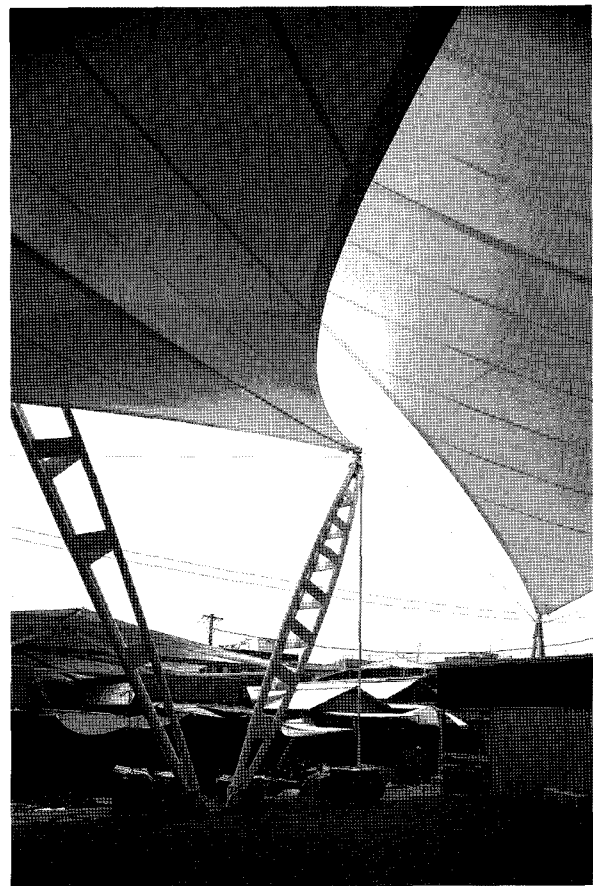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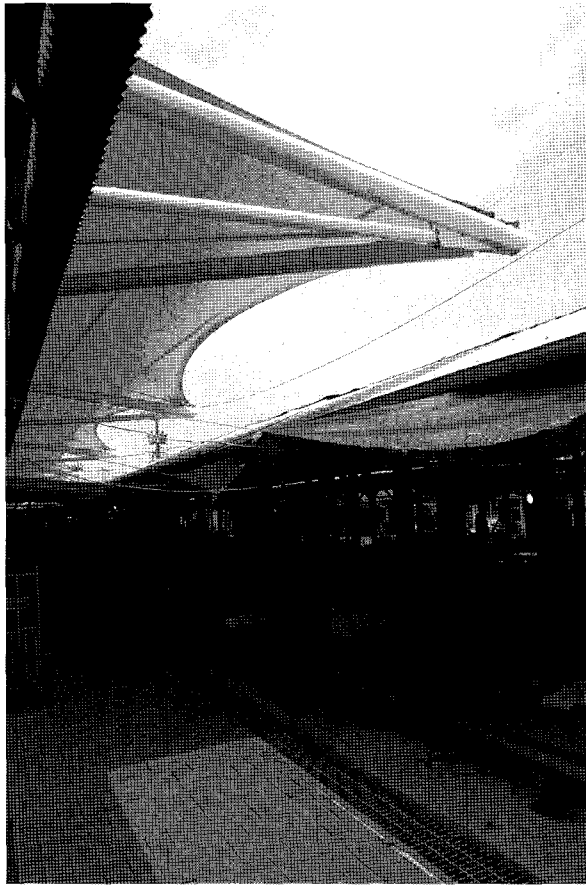
옛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마당을 덮거나 비를 피하는 천막의 역할이 가장 인상적이다. 자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SHELTER로서의 기능과 공간의 확장성을 순식간에 이루는 가장 긍정적 기능이 현대적으로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프

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이다. 우선 시장의 모든 인프라는 지하 공동구방식으로 매설하여 막구조와의 간섭요소를 배제시켰다. 또한 막구조 지붕을 형성하는 Tension wire의 경우 그 고정을 시장내부를 지나다니는 고객과 상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막구조 프레임 안쪽으로 잡아메는 HyperSails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막구조의 기둥간격이 시장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옥의 배치 그리드속에 9m간격으로 계획되었고 기둥에서 지붕 끝까지는 6m의 캔틸레버로 하여 기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함평시장 막구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국내 막구조로서 길이98m, 폭18m의 이대공간 시장설치물은 가장 기록적이기도 하다.

막구조 높이의 경우 함평의 도시적 저층 스카이라인에 맞추어 장옥을 덮는 3.3m를 최소로 하고 최대 4.8m의 구조로 계획되었다. 사용재료의 특징으로는 지붕의 막 재질이 최근 새롭게 개발된 티타늄 코팅이 된 재료로서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변색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 가장 필수적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철재원형기둥과 나선





형 원형기둥을 사용하여 막구조의 다이내믹한 구조미를 한층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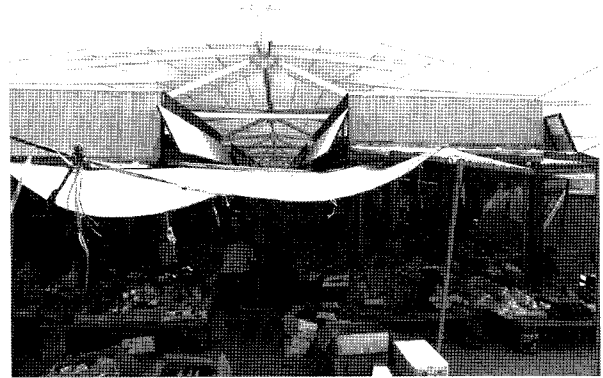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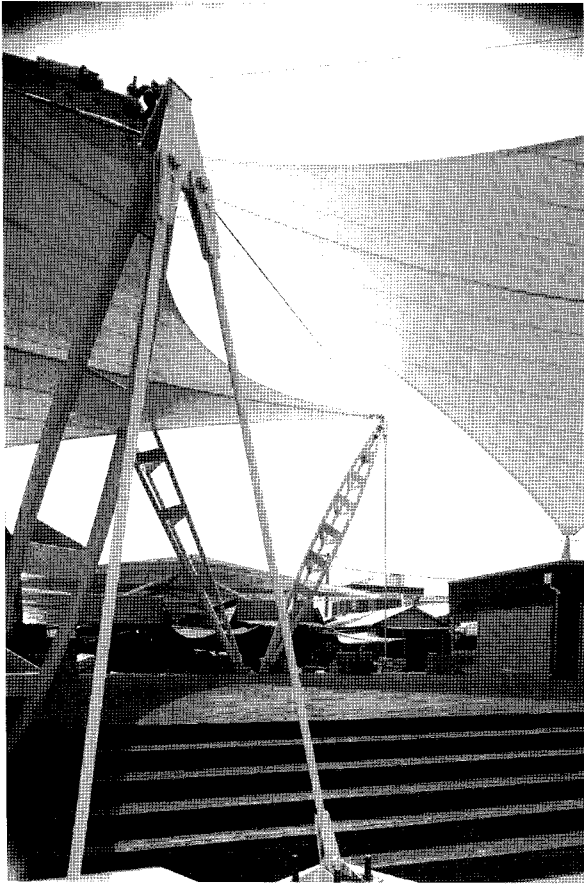
## 재래시장 막구조의 새로운 관제

도심형 재래시장은 우천시 사용에 편리하도록 상가와 상가 사이 길위에 막 또는 폴리카보나이트판을 덮어 씌우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개선사항이었다.

다만 기능적, 외형적 보완에 불가한 화장실 개조,

주차장 확장, 카트비치, 휴게공간할애, 상품권 발권 등 한정된 개념 속에 일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 개념의 통합개념을 적용한 합평시장에서 나타난 몇 가지 발생한 새로운 과제는 앞으로 좋은 개선사항이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막구조를 통해 투과한 빛이 생선류에 미치는 영향, 우천시 거대한 막에서 발생하는 낙수가 판매 상품 전시에 미치는 간섭, 겨울철에 생기는 막 내부 성애가 낮에 녹아 떨어지는 낙수문제, 지붕막에 의



해 가려진 부분과 노출된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불균등 피해의식, 개념적인 휴게공간 보다 상점공간 점유에 대한 상인의 집착, 개방된 층인데도 소방스프링클러 설치하지, 기초공사시 인근주거시설의 울림 영향 등 무수히 많은 기술적, 물리적, 사회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국 구조적인 측면에서 막구조를 사용한 공간적 창조라는 건축의 1차적인 목표이외에도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 물류적인

기능으로서 다양한 공간쓰임, 그리고 인간환경적 측면에서 사용자들의 반응 등에 대해 합목적적으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막구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막연한 대중의 예민한 인식, 즉 바람에 날아가고 찢어지지 않을까, 비가 세지 않을까,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환되도록 막구조의 전문가와 건축가들의 보다 한국적 환경에 맞는 개선노력과 현상에 대한 보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함평시장의 경우 군청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 사례로서 건축가와 물류전문가가 제안하여 전통적인 장터의 개념을 도입한 성공적이고 의욕적인 프로젝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상인들의 인식과 영세한 시장환경, 상인들 각자에게 할당된 자리에 대한 집착 등 내부적 인식과 환경이 아직 고착되고 있지만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장터에 대한 상품개발이 계속된다면 기존 장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시장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의 시장이 머지않아 새롭게 재현되리라 확신한다.